

1970년대 북한의 문화

이우영(통일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1. 문제제기

1967년의 종파투쟁은 북한 사회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장 커다란 변화를 겪은 것은 문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국 이래 문화계에서 주류를 형성해 온 카프 전통이 완전히 몰락하고, 유일지배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경향과 세력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북한의 문화는 새로운 혁명전통을 전면 에 내세우면서 과거와는 다른 체제를 수립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를 문학 발전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이 일어난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¹⁾ 김일성은 “1970년대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당의 주체적인 문예 로선에 따라 찬란히 개화 발전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²⁾ 따라서 197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 문화가 현재의 틀을 갖추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1970년대는 북

1) 천재규 · 정성모, 『조선문학사』, 제14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5쪽.
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1980. 10. 10), 『김일성 저작집』, 제3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306쪽.

한 문화의 특성과 같은 질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화의 차원에서
서도 정비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70년대 북한 문화의
변화 과정은 현재의 북한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1970년대의 북한 문화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일차적
인 목적이 있다. 과거의 문화적 전통과 단절된 1967년 종파투쟁 이후
새롭게 제기된 북한 문화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문화
를 수립하는 가운데서 어떤 제도를 채택하였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북한이 이야기하는 1970년대 북한 문화 상황과의 차이점이다. 일반적
으로 북한에서는 해당 시점의 정치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과거의 상황
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문화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는 1970년대 북한 문화가 주체문예론이
확립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하고 있는
가를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장과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
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70년대 북한 문
화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1970
년대를 자리매김하는 북한의 의도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한 문화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북한 문화 상황을 살펴보기 이 글은 문화정책과 문화이론
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관련 원전을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시점의 중요 문예작품을 부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현재 북한 문화사에 1970년대의 의미를 살펴보고, 1970년
대 시행된 북한 문화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1970년대 제기된
북한 문화이론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북한 문
화의 의미를 알아볼 것이다.

1970년대 북한 문화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 글이 추구하는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으로 1970년대 북한 문화의 실질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적 시점에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1970년대 문화가 어느 정도 현실적합성이 있는가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현재 북한의 인식이 당시와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따져 볼 것이다.

둘째, 유일지배체제가 완성되어가던 시기에 1970년대 북한 문화와 사회변화의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변화가 사회변화의 관계구조를 중점적으로 따져 보고자 한다. 즉, 체제변화가 문화에 끼친 영향과 문화가 사회변화에 미친 영향을 상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작게는 북한 문화 체제변화의 과정을 그리고 크게는 체제변화의 동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북한의 1970년대 문화 자리매김

문화를 통하여 사람들을 정치 사회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1970년대에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³⁾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970년대 북한 문화는 김일성은 1970년 11월 2일부터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3)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로동계급화하는 데서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문학예술 부문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 데 있습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1970년대 북한 문화를 규정하는 데 첫 번째로 인용되고 있다. 『조선전사 33』(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206쪽. 김일성의 교시는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462쪽.

볼 수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은 찬란히 꽃피고 있습니다. 당의 문예 정책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문학예술분야에서 나타났던 수정주의적 요소와 복고주의적 경향이 없어지고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로동계급적 로선이 똑똑히 선 혁명적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한 투쟁이 강화되었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이 문학예술 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었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화혁명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오늘 우리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로, 과학과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이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넓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 락후성은 극복되고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은 로동당 시대에 와서 빛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⁴⁾

수정주의와 복고주의가 극복되었다는 것은 1967년 종파투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박금철과 이효순 등 당의 문예분야 인물들이 대부분 숙정된 196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항일혁명문학이 문예 전통이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고,⁵⁾ 이를 토대로 1970년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2년도 출간된 『조선전사』에 따르면 1970년대는 “문학예술에서의 일대 혁명적 전화, 주체예술의 대전성”이라고 말하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창조할 데 대한 주체적인 문예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당중앙의 현명한

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집』, 제25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5) 1967년 종파투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 문학과지성사, 1994) 참조.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⁶⁾ 특히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비로소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향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사업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문화분야의 김정일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1996년에 출간된 『조선문학사』의 경우도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입장에서 1970년대를 바라보고 있다. 김정일의 기여를 강조하는 것도 유사하지만, 주체사상화와 그리고 문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선전사』와 다소 차이가 있다.⁷⁾ 한편 『조선문학사』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 문화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분야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설 문학의 경우 ‘수령형상창조위업의 빛나는 실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력사에 대한 예술적 형상’을 주요 특징으로 꼽고 있다. 특히 『불멸의 력사』 연작을 핵심적으로 취급하면서, ‘수령님의 혁명적 가정’에 대한 형상화 역시 1970년대 소설 문학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시문학의 경우는 주체 시문학의 고전적 본보기 작품들이 출시되었고, 수령을 칭송하는 ‘송가문학’과 ‘김정일 동지를 칭송한 시가문학’의 출현을 강조하고 있다. 영화 문학에 있어서는 혁명적 수령관의 구현을 중요하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한국전쟁을 다룬 작품들과 사회주의 현실을 다룬 작품들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극과 가극 문학의 경우는 ‘수령님의 혁명 력사에 대한 빛나는 형상’을 핵심적인 경향으로 취급하고 있다.

『조선전사』와 『조선문학사』에 의하여 규정된 1970년대 문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6) 『조선전사 33』, 206쪽.

7) 천재규·정성모, 『조선문학사』, 제14권, 15쪽.

첫째, 주체문예가 본격화된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⁸⁾ 1967년 종파투쟁을 수정주의와의 결별로 주장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체문예이다. 주체문예는 주체사상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것으로서 문화를 통하여 주체사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내재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수령 형상화가 대표적인 창작방향으로 정립되었다는 것이다.⁹⁾ 김일성의 항일활동을 작품의 소재와 주제로 삼는 경향이 1970년대에 정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 『불멸의 력사』 총서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후 북한 문예의 대표적인 경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김정일이 문화관련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1982년 조선전사의 경우는 ‘당중앙의 령도’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김정일의 개입을 표현하고 있으나, 1996년 『조선문학사』의 경우는 김정일의 전면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직접 작품을 창작까지 하였다 말하고 있다.¹⁰⁾

8) 위의 책, 18쪽.

9) 이와 관련하여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비로소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사업을 가장 수준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 력사를 형상한 기념비적 문학예술작품을 수많은 창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조선전사 3』, 210쪽.

10) 대표적인 작품이 1971년 창작하였다는 가요 “어디에 계실지가 그리운 장군님”이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삽입곡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북두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아버지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창문가에 불밝은 최고사랑부
장군님 계신 곳은 그 어테일가

적후천리 밀림속 밤은 깊은데
우리의 장군님은 어데 계실가

넷째, 김일성이 항일운동 시기에 직접 창작하였다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혁명 문예물들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 단원의 운명』 등 가극과 『성황당』 등의 연극이 혁명가극 혹은 혁명 연극으로 명명되면서 북한 문예의 전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항일운동기의 작품들을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고 지칭하면서 이후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작품들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지휘한 사람으로 김정일을 꼽고 있다.¹¹⁾

다섯째, 군중 문화와 집체적 창작이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다. 4·15 창작단, 백두산창작단, 만수대창작사 등의 단체가 설립되어 집단 창작이 제도화되었고, 동시에 일반 군중의 참여가 강조되는 문화적 풍토가 정착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¹²⁾

그러나 시기적으로 10년 이상 차이가 있는 『조선전사』와 『조선문학사』를 비교하면 1970년대 북한 문화를 보는 시각이 다소간 차이가 있다. 1996년의 『조선문학사』에서는 무엇보다도 김정일이 1970년대 북한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한층 높게 평가되고 있다. 1982년도에는 언급이 없었던 김정일 칭송 문학이 상당한 부분 삽입되어 있다. “김정

가을바람 찬바람 불어올수록
따사로운 그 품이 그림습니다

꿈결에도 그리운 아버지 장군님
자나깨나 뵈고 싶은 우리의 장군님
머나먼 적후에서 북녘하늘 우리러
전사들은 아침인사 드리웁니다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을 전하며
아침해빛 전사들의 길을 밝히네
장군님 계시는 최고사령부
기어이 기어이 찾아가리라

11) 위의 책, 208쪽.

12) 위의 책, 210쪽.

일 동지의 위대성을 형용한 새로운 문학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면서 1971년에 나온 시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를 그 효시로 보고 있다.¹³⁾ 특히 후계자로서 김정일을 묘사하는 작품들이 다수 출현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후계자 형상 문학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김일성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등 일가를 ‘혁명 가정’으로 칭송하는 작품들을 중요한 성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수령 형상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1982년의 『조선전사』에서는 김일성만 수령형상창조문학의 범주에 들었으나 1996년의 『조선문학사』에서는 1970년대에 김정일 포함하여 김일성 가족 모두가 형상화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조선전사』에서도 ‘당중앙’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조선문학사』에서는 김정일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조선전사』의 경우 문화분야에 대한 중요 교시는 김일성의 것으로 말해지고 있으며, 혁명적 작품의 창작이나 영화 이론 등 부분적으로 김정일의 기여를 말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문학사』의 경우는 문화체제 전반에 걸쳐 김정일의 교시가 중요한 기준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작품창작에 직접 참여하는 등 활동의 범위도 넓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조선전사』(1982)와 『조선문학사』(1996)의 차이는 전적으로 김정일의 위상변화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북한에서 김정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는 하나 대외적으로 공식화한 것은 아니었던 반면, 1996년은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로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최

13) 천재규·정성모, 『조선문학사』, 제14권, 140쪽.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을이 피어나는 이른 아침에
 인자하신 그 미소를 생각합니다
 고요한 밤하늘에 별이 웃을 때
 따사로운 그 사랑이 그림습니다.

고 통치자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논의도 내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2. 1970년대 북한 문화체제의 양상

1972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는 문화에 대한 장이 독립되어 있다. 문화를 다루고 있는 개정 헌법 제3장은 35조에서 48조까지 총 14조로 이루어져 있다(<표 1> 참조).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북한 문화의 목표, 이념지향,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다. 즉, 북한 문화가 지향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이며,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학예술작품을 표준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이념을 토대로 국가는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일반인의 문예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헌법 개정 후 개최된 제5기 최고인민위원회 1차 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도 문화의 역할이나 문화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데서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높이고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텔리를 교양 개조하는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문학예술도 찬란히 개화 발전합니다. 사회주의 제도는 주권과 생산수단뿐 아니라 문학예술도 인민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문학예술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 놓았으며 문학예술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문학예술로 되게 하였습니다[“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자”(1972. 12. 25)].¹⁴⁾

14) 『김일성 저작집』, 제27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표 7> 1972년 북한 헌법의 문화관련 조항

조 항	내 용	비 고
제35조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가 개화 발전한다	문 화
제36조	문화혁명을 수행, 모든 근로자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문 화
제37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문화 건설·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 반대·민족 문화 유산을 보호	문 화
제38조	국가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 확립	문 화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움	교 육
제40조	국가는 인민 교육 사업과 민족 간부 양성 사업 주도	교 육
제41조	국가는 10년제 의무 교육 실시	교 육
제42조	국가는 학업 전문의 교육 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 체제 확립	교 육
제43조	국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1년간 학교 전 의무교육 실시	교 육
제44조	국가는 과학기술 발전 촉진	교 육
제45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 예술 발전시킴.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근로대중의 문예 활동 유도	문 화
제46조	국가는 우리말을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보호	문 화
제47조	국가는 근로자의 체력을 증진하고 국방체력 강화	체 육
제48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 공고화	의 료

개정된 헌법과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서 사회주의 교양이 문화정책의 목표이며,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추구하는 문화정책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의 대중화라는 명목하에 이 기간에도 다양한 문화시설이 설립되었다. ‘당창건기념관’이 1970년에 건립되었고, 1948년에 세워졌던 ‘조선혁명박물관’은 1972년에 신축 개관되었다. 1974년에는 ‘인민문화궁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과 ‘3대혁명전시관’이 그리고 1975년에는 ‘2·8문화회관’이 건립되었고, 1977년에는 ‘만수대예술극장’이, 1978년에는 ‘국제친선전람관’이 그리고 1979년에는 ‘삼지연 혁명사적관’이 건립되었다. 또한 1971년에는 평양음악대학이 ‘평양음악무용대학’으로 개편 증원되었고, 1972년에는 모란봉예술단이 ‘평양예술단’으

로 개편되었다. 또한 1972년에는 ‘김일성 상’이 제정되어 문화 부문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표 2> 참조).

<표 2> 1970년대 북한 문화정책관련 사안

연 도	내 용	비 고
1970	당창건 기념관	시 설
	평양TV방송국이 조선중앙TV방송	시 설
1971	평양음악대학이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육기관
	피바다, 당의 참된 딸	창작 공연
1972	헌법 개정	법
	조선혁명박물관	시 설
	모란봉예술단이 평양예술단	단 체
	김일성 상	상
	꽃피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작 품
	불멸의 력사	작 품
1973	금강산의 노래	작 품
1974	인민문화궁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과 3대혁명전시관	시 설
	주체적 출판 보도 강령	법
	부분적인 천연색 방송	실 시
1975	2·8문화회관	시 설
1977	만수대예술극장	시 설
	전면적 천연색 방송	실 시
1978	국제친선전람관	시 설
1979	삼지연 혁명사적관	시 설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도 해외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피바다 가극단, 평양교예단, 평양만수대예술단, 평양예술단, 평양학생소년 예술단 및 국립교향악단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버마, 인도 등의 아시아 각국, 루마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소련 등의 유럽 각국 및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공연을 가졌다. 1972년에는 국제영화축전에 참가하였으며, 1973년에는 베를린에서 개최한 제10회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다.¹⁵⁾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는데, 1975년까지 역사유물 3200여 개소가 정비되고 유적 11만 9,000여 건이 재평가된다.¹⁶⁾

1970년대 북한의 문화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언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TV를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는 1966년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였는데¹⁷⁾ 1970년에 김일성이 “우리는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 발전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을 지켜 내기 위한 투쟁을 전 민족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이후에¹⁸⁾ 언어는 더욱 중시되었다. 문화어에 대한 관심이 결집된 것인 1973년에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편찬한 『조선문화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어를 강조한 것은 남한 언어가 외래문물에 훼손되었음을 부각함으로써 북한이 상대적으로 민족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서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이 “근로자들의 문화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출판물 보급 사업과 방송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특히 텔레비존 방송망을 더욱 늘여 가까운 년간에 온 나라의 텔레비존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¹⁹⁾ TV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1974년 5월 7일에 “주체적 출판보도 강령”을 발표하였고, 이후 TV

15) 『조선중앙년감』 각년도 참조.

16) 『조선중앙년감 1976』(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6), 361쪽.

17) 문화어는 다음의 글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 나갈 데 대하여”(1966. 5. 14), 『김일성 저작집』, 제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43쪽.

18) 김일성, “조선로동당 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1970. 11. 2),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3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48쪽.

19) 위의 책, 46쪽. 5차 당대회의 문화 예술분야 토론 과정에서도 TV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다. “박영신 토론”,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3집, 890쪽.

방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되어 1969년에 실질적으로 완공된 ‘평양TV방송국’이 1970년에 ‘조선중앙TV방송’으로 개명하게 된다. 조선중앙방송은 1971년에 녹화방송을, 1974년에는 부분적인 천연색 방송을 그리고 1977년에는 전면적 천연색 방송을 실시하게 된다. 개성TV방송이 1971년에 개국한다.²⁰⁾

3. 1970년대 북한 문화의 의미

현재의 관점에서 의미 규정하고 있는 1970년대의 북한 문화는 주체 문예의 확립과 수령형상문학의 창조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당시의 현실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과거 시점의 문건을 가감하는 경향이²¹⁾ 있는 북한에서는 현재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사도 재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70년대에 출판되었던 문화관련 잡지 등을 통해서 1970년대 북한 문화의 현황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문예관련 종합지인 『조선예술』의 1970년대 글들을 보면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현재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첫째, 주체사상이나 주체문예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주체예술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맑스-레닌주의에 충실할 것을 작가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당의 령도에 충실할 것과 유일체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²²⁾ 따라서 ‘주체문예’라

20) 사회과학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2』, 341쪽.

21) 김일성의 주요 문건에서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다. 1960년대 출판된 『김일성 저작선집』과 1970년대 후반부터 출간된 『김일성 저작집』에서 서로 어긋나는 글이 보여지기도 하며, 과거 대단히 중요한 문건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해당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고 ‘주체적 문예사상’에 따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기본적인 요구라고 말하고 있다.²³⁾ 따라서 1970년대에는 주체사상을 문학예술에 구현하는 것을 요구하였지만 사회주의 일반의 경향과는 독립된 문화체계가 정비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항일혁명문학에 대한 강조는 지속되고 있지만 수령형상문학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유일지배체제를 강조하고 새로운 혁명적 전통으로 항일빨치산 활동이 정립되었지만, 수령형상화에 대한 논의는 당시의 출판된 잡지에는 별로 없다.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에 나온 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²⁴⁾ 또한 김정일의 당시 문건에서도 수령형상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두드러지지 않는다.²⁵⁾ 이러한 점에서 『불멸의 력사』 총서와 같은 수령형상문학이 1970년대에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중시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당시에는 수령형상문학이라는 것이 독자적인 개념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현재의 관점에서는 민족문화가 1970년대에도 중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민족문화보다는 복고주의와 반동에 대한 우려가 더욱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복고주의는 반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줄류로서 그것이 허용되면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며 인민들의 의식 속에 반동적인 브르쥬아 사상, 봉건 유교사상을 퍼뜨림으로써 사상혁명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²⁶⁾ 다만 1970년대 후반에 가면서 민족적인 것에 대한 관

22)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예술』, 10호(1972), 13~18쪽.

23)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창조의 기본요구”, 『조선예술』, 10호(1978), 33쪽.

24)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받들고 혁명적인 문학예술 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자”, 『조선예술』, 11호(1980), 4~7쪽.

25) 김정일,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참조.

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⁷⁾

넷째, 김정일의 영향력은 1970년대 중반부터 점차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초반에는 김정일과 관련된 내용이 많지가 않은 반면 1973년경부터 점차 많아진다. 특히 영화분야에 대한 김정일의 영향력을 언급하는 문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혁명가극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 김정일과 관련된 내용이 확대된다.

전반적으로 문화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전 시기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970년대 북한의 문화는 몇 가지 점에서 독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3대혁명 추진의 한 과정으로 문화정책이 추진되어졌다는 점이다. 1973년 9월 개최된 노동당 제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사상·기술·문화혁명을 하나로 묶어 3대혁명으로 명명한 후, 3대혁명은 북한 체제의 궁극적인 발전 목표가 되었다.²⁸⁾ 문화혁명을 김일성은 “생산문화와 생활문화의 개선 운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²⁹⁾ 북한에서는 이를 낡은 사회의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노동계급의 새 문화를 창조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화적으로 살며 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문화혁명의 근본 목표는 전 사회를 인텔리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문화혁명을 성과적

26)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예술』, 10호(1972), 15쪽.

27) 김최원, “민족적인 것과 우리식의 노래간의 호상 관계에 대하여”, 『조선예술』, 10호(1978), 38~44쪽 참조.

28) 1950년대부터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개별적으로 언급되었다가, 1964년 김일성의 「사회주의 농촌 체제」에서 처음으로 동시에 언급되었다.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기본 과업으로 규정되고 다시 1972년 개정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29) 김일성,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1973. 3. 14), 『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439쪽.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문화건설에서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리고 노동계급의 이념과 요구를 구현하며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를 막아내고 복고주의적 경향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³⁰⁾

문화혁명에서의 문화 논의는 기존의 논의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혁명을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혁명 및 기술혁명과 결합하여 추진한다는 점이 3대혁명의 특징이다. 이것은 문화를 정치(사상혁명) 및 생산(기술혁명)과 연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¹⁾ 이러한 정책방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술선전대’ 활동의 강조이다. 생산현장에서의 공연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예술선전대의 활동이 19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진다.³²⁾ 따라서 1960년대까지 북한의 문화가 주로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1970년대에는 문화를 노동동원화에 활용함으로써 문화의 경제적 기능도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체문예이론’이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1960년대 후반의 문학계의 반종파투쟁을 통해 카프 전통과 단절한 북한은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하게 한다. 북한에서 주체문예이론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 형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 주체적인 사회주의 문

30) “문화혁명”, 『백과전서 2』(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809쪽.

31) 김일성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의 전반적 기술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며 일반 지식 수준을 한 계단 더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71. 9. 25), 『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 83쪽.

32) 예를 들어 1975년의 경우 무대 공연 1,620회, 현장 공연 2,650회, 1977년의 경우 무대 공연 2,053회, 현장 공연 3,687회나 수행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년감』 각년도 참조.

학예술을 건설하고 창조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 실천적 문제들에 독창적이고도 심오한 과학적 해명을 줌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예 리론에서 전혀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새 시대의 참다운 문학예술이 나아갈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 주는 정확한 지도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³⁾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감정, 기호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³⁴⁾ 주체문예이론에서는 예술의 형상성을 민족적인 정서와 감정에 맞는 민족적인 문학형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적 형식 못지 않게 사회주의적 내용도 중요한데 그것은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 목적은 ‘인민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을 건설’하는 데 있으며,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이 시대의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체문예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적 내용은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는 투쟁, 착취 계급과 사회를 반대하는 투쟁, 인민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모든 사람이 잘살도록 하는 투쟁과 같은 혁명적인 내용을 의미한다.³⁵⁾

주체문예이론의 민족적인 형식은 전통적인 민족문학의 형식이나 전통 양식의 현대적 재조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적 형식은 김일성이 항일유격대 시절에 창작하거나 지도하였던 문학예술형식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이념은 보편적인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김일성 유일사상이다. 그러므로 주체문예이론에서는 항일혁명문학의 전형성이 더욱 강조된다.

33)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 리론 연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1쪽.

34) 위의 책, 51쪽.

35) 위의 책, 69~70쪽.

주체문예이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70년대에는 혁명문학예술 창조에 박차가 가해진다. 북한에서 5대혁명가극인 ‘피바다’(1971), ‘당의 참된 딸’(1971), ‘꽃피는 처녀’(1972), ‘밀림아 이야기하라’(1972), ‘금강산의 노래’(1973)가 창작 공연되고, 혁명연극을 대표하는 ‘성황당’이 1978년에 초연된다. 소설에 있어서도 항일혁명문학을 대표하는 『불멸의 력사』 총서가 1972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다(<표 2> 참조).

셋째, 김정일이 주장하는 ‘종자론’(種子論)이 문학예술창조의 지침이 된다는 점이다. 주체문예이론의 구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정일은³⁶⁾ 1973년 『영화예술론』을 출판하면서 종자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³⁷⁾ 김정일은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 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종자는 소재와 주체, 사상을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⁸⁾ 종자는 작가의 소재 선택, 이야기의 전개 및 묘사, 주제의 형상화 그리고 미학적 감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작품의 창작과 작품에 대한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종자론에서 중요한 것은 종자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종자의

36) 1970년대에 발표된 혁명 가극을 포함한 소설 및 영화 창작을 김정일이 직접 지도하였다고 한다. 류만, 『당의 령도 밑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주체적 문학예술』(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4장 다양한 문학예술 형태의 전면적 발전 참조.

37) 북한에서 ‘종자’란 말은 1972년의 문학예술사전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문학예술사전』, 769~771쪽. 여기에서는 종자를 주체문예이론의 구현과정에서 파생된 새로운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독자적인 문예이론으로 정립된 것은 이듬해 나온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에서이고 그 이후 북한에서는 종자론의 창시자로 김정일을 들고 있다.

38) 김정일, “영화예술론”, 『주체 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 1972~1973』, 제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114쪽.

39) 김정일은 “종자를 똑똑히 골라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말할

선택기준은 당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롭고 특색이 있는 것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⁴⁰⁾ 그러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자의 사상적 성격, 즉 정치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의 이념에 부합되는 종자의 선택이 작품창작의 일차적인 관건이 된다.

종자론이 주체문예이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주체 문예이론이 순수문예이론에 가깝다고 한다면, 종자론은 상대적으로 문학예술의 창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강령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자론의 강조와 확산은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종자론에서 사상적 알맹이를 중시함으로써 작품창작에서 사상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상적 알맹이를 당의 정책, 곧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상적 획일화가 더욱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종자론은 창작과정과 같은 문화생활의 미시적인 차원에까지 당과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의 북한 문화정책은 이전 시기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다 정교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학예술이 3대혁명 과정뿐만 아니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3대혁명소조운동에도 개입함으로써⁴¹⁾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문화의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위의 책, 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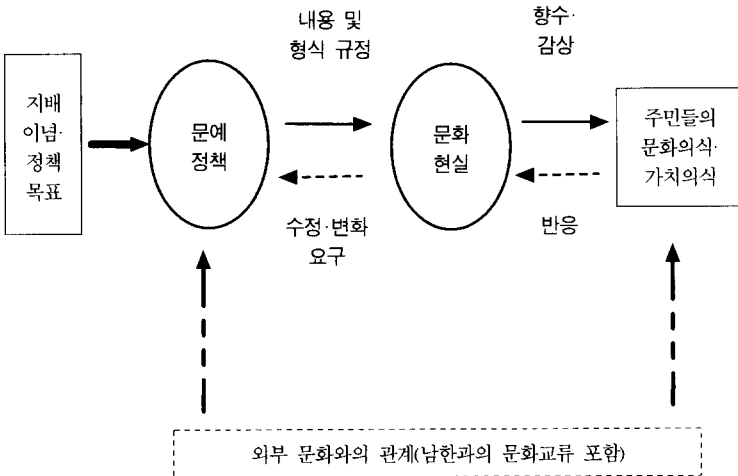
40) 위의 책, 118~123쪽; 김정웅, 『종자와 작품 창작』(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76~95쪽.

41)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은 1973년부터 시작된 대중운동이며, 3대혁명 소조 운동은 1973년부터 시작된 조직 운동으로 3대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백과전서 3』(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596~599쪽. 예술 소조의 경우 1975년도에 총인원이 1,188명으로 대중 공연과 대중에 대한 지도를 활발히 하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76』, 359~360쪽.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문화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다음의 그림 참조). 무엇보다도 지배이념의 목표나 정책목표가 일차적인 결정요인이고 이에 따라 문화정책이 결정되면 문화현실이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이나 외부문화와의 접촉관계도 역으로 문화적 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⁴²⁾ 1970년대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지배이념의 변화 그리고 이를 유인하고 있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북한 문화의 변화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67년 종파투쟁 이후 유일지배체제의 강화와 김정일이 등장인 문화정책이나 문화적 현실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1> 북한 문화체제의 변화 과정



42)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서울 : 통일연구원, 1997), 47~48쪽.

4. 맺음말

1970년대 북한 문화는 현재 북한 문화의 골격이 잡힌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문화를 주체혁명이론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교육, 과학, 문학예술, 민족어, 체육 및 보건 그리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으로 분류하고 있다.⁴³⁾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가 발표된 것은 1977년이고, 문예 분야에 핵심적인 문건이 된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이 발표된 것은 1973년이다. 또한 항일혁명 문학과 수령형상문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불후의 고전적 명작이라는 항일혁명기 작품들이 현대적으로 창작된 것도 이 시기였다. 또한 각종 창작단이 설립되는 등 문화관련 제도도 완비되었고, 현재도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시기의 다양한 사회주의 운동을 제치고 항일유격대가 혁명적 전통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1967년 종파투쟁의 결과이기도 하고, 동시에 유일지배체제 강화와 맞물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이 영화 부문을 필두로 북한체제의 영향력을 확대되는 것도 1970년대 북한 문화체제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는 여전히 과거 문화적 전통과의 단절이 핵심적인 과제였고, 1967년 종파투쟁의 마무리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항일혁명문학과 수령형상문학이 문화현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이 새로운 문예이론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현재 북한에서 이야기하듯이 김정일 처음부터 문화체제에 영향력을 끼쳤다고보다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43) 박승덕, 『사회주의 문화 건설 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참조.

영향력이 확대되고 공식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 이야기하였듯이 김정일이나 김일성 일가에 대한 칭송문예작품이 당시에 언급된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수령형상문학의 중심은 김일성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당시가 여전히 유일 지배체제의 안정화가 시급하였다는 상황이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김일성,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1973. 3. 14), 『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저작집』, 제25권(1970.1~1970.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80. 10. 10), 『김일성 저작집』, 제3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 “조선로동당 5차대회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70. 11. 2),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3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 , “조선로동당·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71. 9. 25), 『김일성 저작선집』, 제6권.
- ,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나갈 데 대하여”(1966. 5. 14), 『김일성 저작집』, 제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김일성 저작집』,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 김정웅, 『종자와 작품창작』(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김정일,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김정일 저작선집』,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 “영화예술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972~1973』, 제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최원, “민족적인 것과 우리식의 노래간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조선예술』, 10호(1978).
- 류만, 『당의 령도 밑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주체적 문학예술』(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4).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사회과학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2』.

천재규·정성모, 『조선문학사』, 제14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예술』, 10호(1972).

“문화혁명”, 『백과전서 2』(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예술창조의 기본요구”, 『조선예술』, 10호(1978).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보고를 받들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창작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지”, 『조선예술』, 11호(1980).

『백과전서 3』(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조선전사 33』(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조선중앙년감 1976』(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6).

<2차 자료>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1997).

North Korean Culture During 1970s

Woo Young Lee(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Following sectarian strife in 1967, North Korean culture began to be developed alongside the “sole leadership” system. North Korea broke away from the KAPF tradition that had dominated North Korean cultural circles since the colonial period and instead began to embrace literature that eulogized Kim Il-sung in order to shape his image as President of North Korea. Both culturally and artistically, this eulogizing of the pre-liberation anti-Japanese activities of Kim Il-sung’s guerrilla unit began to shape the new revolutionary tradition and literature North Koreans would be forced to embrace.

The shaping of 1970s North Korean culture—led by Kim Jong-il—was a process that sought to justify Kim Il-sung’s absolute leadership. Literary works that sculpted the image of Kim Il-sung and aggrandized stories of his anti-Japanese revolutionary campaigns were promoted in earnest. Kim Jong-il’s essay on art and film, which became a critical work in North Korean art and literature, was presented in 1973, and a thesis on the education of socialism was presented in 1977. As well, culture-related systems(i.e., various

foundations for creative writing, etc.) were put into place and have remained in place to this day.

However, breaking away from past cultural tradition was still the key issue in the early 1970s. Literature that sculpted the image of North Korean president Kim Il-sung and promoted the anti-Japanese revolutionary tradition distinctly emerged as cultural phenomena (though it is difficult to claim that this established new theories of literature and art). But despite Kim Jong-il's role in this process from the onset, his influence on the cultural system did not become official or widespread until the mid-1970s. In addition, no literature eulogized Kim Jong-il or Kim Il-sung's family at this time; Kim Il-sung alone had become the center of all literature. This reveals that, in the 1970s, the stability of the "sole leadership" system was still the urgent and predominate task.

Key Words : anti-Japanese revolutionary literature, literature eulogizing Kim Il-sung, seed theory, sole leadership system, Kim Jong-il, sectarian strife